

용기를 잃지 않는 건축사님께

Advice on the Professionalism

ESSAY

方喆麟 /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인 · 인토
by Bang, Cheol - Lin

지리하고 길게만 느껴졌던 봄이 지나고나면 성숙되고 활짝건 여름이 시작될까 기대 했지만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장마가 지리한 계절을 지속시키고 있어 올해도 우리 건축사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한해의 반을 보내면서 전반기에 했던 일도 돌아보고 잘된일, 잘못된일도 반성하며 그해의 목표에 맞추어 후반기 계획도 세워왔던 계절입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좀더 잘 해보겠다고 다짐도 해보고 봄에 이루지 못한 계획을 가을로 잡아 보기도 하고... 이 모두가 우리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요, 거느린 식구 걱정도 해야하는 책임의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건축사에게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거운 수박에 없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볼 일도 회상할 일도 없으며, 후반기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마이너스 I.Q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상강도에게 옷마저 빼앗겨 생각의 리듬도 마음의 여유도 모두 깨어져 허둥대는 벌거숭이 처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후반기가 되면 얼어붙었던 건축규제도 풀리고 건축법, 건축사법도 정리가 되어 건축사 지위도 좀더 올라가고 그러면 어깨도 펴고 생각도 키우며 생활의 리듬도 되찾아 보겠다는 우리 건축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듯 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풍랑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기분입니다. 풍랑을 이기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선장이 원망스럽습니다. 자연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道)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 위력만을 과시하려는 선장에게 우리 건축사의 몸을 맡긴 것같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이런일 저런일을 벌려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 정치가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한 태평성대를 유지시키는 정치가가 유능한 정치가라는 노장의 명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도 경제도 도가 있어 도를 알고 순리대로 풀어야 부작용이 적고 반대 급부적 피해발생이 적어진다는 이치가 담긴 말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경기속에 집의 수가 많아지면 집이 남아돌게 될 것이고 집이 남으면 더이상 짓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한 이치를 왜 터득치 못하고 강제적 건축규제를 지속하는지 답답합니다.

강제로 집을 못짓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쯤도 정말 모르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애초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슨정치를 하든 우리의 본분만을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슨 정책을 논의하던 우리의 이상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건축문화를 꽃피울까. 어떻게 우리의 건축을 세계속에 심어놓을 수 있을까 - 우리 건축사들 만큼 건축문화 수준이 그나라 문화의 총체적 척도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화를

걱정하는 이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건축문화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업인은 기업에만 몰두하고 스포츠인은 체육에만 열중하며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듯 우리 건축사도 건축에만 몰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만 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해야 할 부분에 왜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될까요. 우리의 본분만 생각해도 다른나라에 뒤지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대화에 소임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정말 만족할 만큼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2백만호 건설은 꼭 단시일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자연은 진정 보존되고 있는가? 관주도의 건축설계경기에서는 과연 좋은 안이 선택되어지고 있는가? ...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전시행정에서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단 기간내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급한 마음에 질보다 양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서두르던 2백만호 건설은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주거문화’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전국건축사 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하여 몇마디 격려를 하고 떠나버리는 정치인들보다 진정 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또 우리의 건축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겠다는 종합적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건축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할 줄 아는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축을 구분할 줄 알고 건물과 건축을 구분할 줄 아는 - 그래서 문화국의 정치인이며 행정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떠벌려 놓은 채 마무리가 안된 환경 개발 사업이 얼마나 산재해 있으며 또 순리에 의하지 않고 억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임자가 벌인 사업은 수수방관한 채 새로 벌이는 사업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보다 어떤 일이든 끝마무리를 잘하는 정치인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백만호의 주택건설도 이제까지의 주거환경 완성도로 보아 쾌적성을 논하기 이전에 완벽한 질과 마무리가 되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건축계, 건설계에 미치는 수많은 피해의 결과물 임에도 불구하고 ...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무지한 건축주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내는 수수료보다 설계비를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요. 건설비는 자재가 들어가니 덜취봤자 나쁜자재가 쓰여질 것같은 기분이 들어 심하게 낮추지 못하면서도 설계비는 웬지 그냥 지불하는 것같아 아깝다고 느끼는 거지요.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조금 머리회전이 빠른 건축주는 설계비 경합을 시켜 건축사들은 곤욕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짠 설계비에 설계를 맡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집은 좋은 설계에 의해 탄생되고 좋은설계는 결코 낮은 설계비로 할 수 없음을 모르니

그런 건축주는 좋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 셈이죠. 오히려 설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여 기능분석과 배분, 도시콘텍스트와 인간감성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 공간구성 등에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며 구조계획, 기계설비, 전기설비, 방재설비, 그리고 토목과 음향에 이르기까지 좋은 컨설턴트들을 동원시켜 최대한의 노력으로 경제적이면서 건강한 집을 설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사들이 청사진 몇장 그려주고 청사진 값 받는 업자가 되느냐, 건축주로 하여금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조연자가 되느냐는 건축주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설계와 건축사의 좋은 조연이 결국은 좋은 집을 갖게하며 나아가 많은 건설비와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뒤늦게나마 깨달은 건축주는 다음일을 할때는 건축사의 역할이나 설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지요.

우리 건축사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모질지 못하여 늘 불이익을 당합니다. 건축사의 사(士)는 선비를 뜻하는 말이고 선비는 ‘학식은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학문을 닦은 사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니 건축사는 곧 건축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건축을 갖고자 하는 이에게 조언을 해주어 좋은 건축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다른 「士」를 가진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응당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이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업자 취급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을 갖겠다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냐. 우리 건축사보다는 목수와 이야기하는 편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 변호사 없이 적절 재판에 뛰어 드는 것과 같이. 물론 우리 건축사들도 그런 류들의 건축주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건축사 지위에 부당한 불이익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때때로 요구하는 설계비 경합에도 응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설계 보수요율에는 Design Fee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말 그대로 「설계보수」에 해당하니 그것마저도 경합에 의해 부당한 보수를 받는다면 결코 좋은 건축사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건축사들에게 요즘과 같이 불이익을 받았을때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때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지지 않을때 비로소 한국건축은 「환경」에 앞장서고 「문화」를 리드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건축설계의 의뢰자가 관이건 개인이건 건축 안팎을 사는 모든 이들도 「최고의 환경」 「양질의 문화」속에서 사는 긍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